

# 청천(聽川) 김진섭(金晉燮)의 수필세계 1

– 외국문학의 영향을 중심으로 –

김 미 영 \*

1. 여는 말
2. 사색적 에세이에 나타난 짐멜의 영향
3. 생활(철학)론에 나타난 피테와 니체의 영향
4. 수필론에 나타난 몽테뉴와 베이컨의 영향
5. 닫는 말

## 1. 여는 말

청천(聽川) 김진섭(金晉燮, 1903~?)은 일제강점기 한국근대수필의 정착에 애쓴 수필가이다. 그의 수필은 당대 문인들로부터 극찬을 받았는데, 이런 평가는 현재까지 대체로 이어지고 있다.<sup>1)</sup> 예를 들면, 이현구는 청천의 문장들은 ‘스타일리스트’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며, “스스로를 현학으로 꾸미지 아니하고 명경지수(明鏡止水)의 심정으로 문장 속에 자신을 투영”하고 있다고 평하였다.<sup>2)</sup> 박종화는 청천의 수필에는 ‘기막힌 철학’, ‘아름다운 미학’, ‘우주를 달관하고 인생을 파헤치는 날카로운 안광(眼光)’이 있다고 말하였다.<sup>3)</sup> 신동한은 청천의 수필

\* 홍익대학교 교양학부 조교수.

1) 이런 예에는 김기림, 1933.9 「수필 · 불안 · ‘가톨리시즘’」『신동아』 23(3권 9호)와 『동아일보』 1940.3.1-3.5 이하윤, 「잡문과 수필」이 대표적이다.

2) 이현구, 1975 「청천 김진섭 시론」『진실을 벗 삼아』, 박영사, 133면.

3) 박종화, 1978 「서문: 청천을 생각하며」, 김진섭, 『김진섭미발표수필선』, 중앙일보 · 동양방송, 4-7면.

은 서양에세이의 경지에 도달한 우리 문학사의 첫 예로, “자기 사색을 거친 정돈된 문장”이라면서 “생활에 밸을 붙이고 있으면서도 풍류와 아취가 있다”어 “광범한 독서와 끊임없는 연찬(研鑽)”으로 도달한 ‘높은 교양’과 “적당히 술에 취하는 가운데 속기(俗氣)를 씻어서 털어낸” 결과로 볼 수 있다고 말하였다.<sup>4)</sup> 이런 고풍에 힘입어, 청천의 수필들은 지금껏 한국근대수필사에서 독보적 위상을 차지해 왔다.

그러나 청천의 수필에는 ‘사색적’이란 친사 외에도 ‘관념적’이란 비판도 항용 불어 다녔다. ‘사색적’이란 평가가 감상 위주의 신변잡기가 아닌, 이성의 작동에 의한 사유의 힘을 드러내는 글이란 점을 긍정적으로 본 것이라면, ‘관념적’이란 평가는 그것이 당대 조선의 현실로부터 괴리된 사유라는 점에 주목한, 부정적인 성격의 것이라 할 수 있다. 김진섭 수필의 이런 성격은 독문학을 전공한 그가 가졌던 독일철학에의 동경과 관련 있다는 것이 김윤식의 지적이다. ‘생활’을 강조하면서도 청천의 수필들에서 생활을 실상 폄하되거나 소외되어 있어, 수필에 드러난 청천의 철학은 생활인의 것이라기보다 비생활인의 철학에 가깝다는 비판도 있었다.<sup>5)</sup> 또 청천이 제시한 “방관적 태도”로 “숨김없이 자기를 말”하는 글이 수필이란 논의에서 전자는 딜레탕티즘을, 후자는 자기표현에의 욕구를 드러낸 것에 불과하며, ‘생활’의 목적이 ‘생활하는 것’이란 대목에는 인간을 초역사적 실체로 간주하는 인식적 한계가 나타난다는 지적도 있었다.<sup>6)</sup>

청천 김진섭은 1903년 전남 목포에서 태어났다. 1909년 관리였던 아버지를 따라 제주도와 나주에서 생활하다 1916년 상경하여 양정고보(養正高普)에 입학했고, 1921년 9월 도일(渡日)하여 호세이대학(法政大學)에 입학한 후, 1924년 독문학과(獨文學科)로 진학하여 1927년에 졸업했다. 대학 재학 중이던 1926년 손우성·이하운 등과 ‘외국문학연구회’를 조직하여 다음해 1월 『해외문학』을 발간하여 카프와 대결하면서 외국문학에 관한 올바른 소개를 꿈꾸었다. 1927년 「무형

4) 신동한, 1976 「생활과 사색의 글들: 김진섭 론」, 김진섭, 『백설부』, 범우사, 13-19면.

5) 김윤식, 1986 「비(非)생활인의 철학」, 수필문우회 편, 『엽서를 보내는 마음으로』, 범양사 출판부, 289-296면.

6) 방민호, 2004 「김진섭 수필 문학과 ‘생활’의 의미」, 『어두운 시대의 빛과 꽃: 탄생 100주년 문학인 기념문학제 논문집 2003-2004』, 민음사, 161-179면.

(無形)의 교훈(教訓)」이란 수필로 등단한 뒤, 귀국 후 1928년 경성제대 도서관 촉탁 사서로 있으면서 1930년 「모송론(母頌論)」을 발표하였다. 이후 수필 창작에 본격적으로 나선 그는 1930년대에는 ‘생활의 예지’를 담은 ‘생활철학(生活哲學)’적 수필들을 발표했고, ‘관찰과 사색과 비판’이란 요소들의 균형 속에 진솔한 자기성찰을 담는 문학양식으로서 수필론의 정립을 시도하였다. 1931년 7월부터는 서항석·이하윤·이현구 등과 ‘극예술연구회’를 만들어 신극운동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해방 이후엔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장 및 동 대학과 성균관대학의 교수를 거쳐 서울신문사 출판국장을 역임하였고, 『독일어교본(獨逸語教本)』도 출간하였다. 1947년에는 28편의 글로 첫 수필집 『인생예찬(人生禮讚)』을, 1948년에는 『생활인의 철학』(宣文社)을 출간했다. 6·25전쟁 중이던 1950년, 평론과 외국문학 소개 논문집 『교양의 문학』의 출간을 앞둔 그는 박영희, 김억, 김동환, 홍구범, 정인섭과 함께 납북(拉北)되었다.<sup>7)</sup> 그가 부재한 가운데 1955년 『교양의 문학』(進文社)이 간행되었으며, 1958년 유작(遺作) 수필 40편으로 『청천수필평론집』(新雅社)이 출간되었다. 또한 1978년에는 『김진섭 미발표 수필선』(중앙일보·동양방송, 1978)이 간행되었다.

김진섭의 수필이 ‘관념적·철학적’이란 평가는 그가 독문학을 전공했고 독일은 관념철학이 승(勝)한 나라란 막연한 선입견이 작용한 때문일까? ‘외국문학연구회’를 주도한 그의 수필에 그가 전공한 독문학은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이런 질문들에서 이 글은 기획되었다. 이 논문의 목적은 지금껏 김진섭 수필에 관한 논의에서 독문학과 관련해서는 선입견을 넘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전무하였음에 착안하여 그의 수필에 나타난 독일문학 혹은 외국문학의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청천 수필의 본질 인식에 한발 다가서려는 데 있다.

## 2. 사색적 에세이에 나타난 짐멜의 영향

김진섭은 첫 수필집 『인생예찬』의 「자서」에서 원래 자신의 생애 첫 책의 제목

7) 『민주신보』 1951.1.1 「납북예술인과 월북예술인」.

을 ‘창변기(窓邊記)’로 하려 했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모아둔 원고들이 화재로 재가 되는 바람에 5-6년이 지난 뒤에 모으기 쉬운 ‘잡록’들을 모아 『인생예찬』(1947)을 내게 되었다는 것이다.<sup>8)</sup> ‘잡록’에 불과한 『인생예찬』이지만, 이를 통해 과거를 반성하고 새 출발의 계기로 삼고자 책을 낸다고 그는 「자서」에 적고 있다. 여기서 그가 원래 생각한 생애 첫 수필집의 제목이 ‘창변기(窓邊記)’였음을 주목을 요한다. ‘창변기’란 ‘창가에서의 기록’이란 뜻이고, 이는 그가 전반기 자신의 수필세계를 대표하는 표제작으로 「창(窓)」을 꼽았음을 말해준다. 김진섭의 「창」은 이태준이 『문장강화』(1940)에서 수필의 작성요령을 설명한 후 한국수필 가운데 가장 볼 만한 작품 몇을 예로 들면서 첫 번째로 꼽은 작품이다. 김진섭이 자신의 초기 대표작으로 간주한 「창」은 기실 당대 문장전문가이던 이태준의 눈에도 한국근대수필의 대표작으로 꼽을 만큼 빼어난 작품이었던 것이다. 「창」은 김진섭이 창가(窓邊)에 서서 ‘창’이란 물상(대상)에 대해 사색한 내용을 서술한, 다소 관념적인 수필이다. 그런데 독특하게도 김진섭은 『문학』 1934년 1월호에 발표한 「창」의 서두에 자신의 수필작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혀 놓고 있다.

窓을 解放의 道에 있어서 暫時 생각하여 본다. 이것은 卽 내 生活의 倦怠에 못 이겨 窓側에 氣運 없이 몸을 기대었을 때, 한 갈래 두 갈래 머리로부터 흐르던 思想의 가난한 한 뮤음이다.

哲學者 게오르그 짐멜은 一個 花瓶의 손잡이로부터 놀랄 만큼 魅力 있는 하나의 世界觀을 導出하였다. 이것은 적어도 하나의 有名한 事實임을 잊지 않는다. 이 例에 따라 나는 한 個의 窓을 觀察의 對象으로 삼으려 한다. 그러나 이것이 果然 나의 버젓한 世界觀이 될지, 또는 하나의 名色 ‘水泡哲學’에 歸하고 말지는 保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어떠한 것에 이 ‘窓側의 思想’이 屬하게 되든-勿論 이것은 그 나쁘지 않은企圖에도 不拘하고 아직은 오히려 하나의 未熟한 素描에 그칠 따름이다.

窓은 우리에게 光明을 가져오는 者이다. 窓이란 흔히 우리의 太陽임을 意味한다. 사람은 눈이 그 窓이고, 집은 그 窓이 눈이다. 오직 사람과 家屋에 멈칠 뿐이라.仔細히 點檢하면 모든 物體는 그 어떠한 것으로 依하여 서든지 반드시 그 通路를 가지 고 있음은 두말할 것도 없다.<sup>9)</sup>(밑줄은 인용자)

8) 김진섭, 1947 「자서」 『인생예찬』, 현대문화사, 1-2면.

9) 위의 책, 「창」, 66-67면.

위의 인용문에서 김진섭은 수필을 구상하는 자기만의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창가에 기대어 선 작가는 ‘창’을 관찰하면서 ‘창’에 대한 상념을 펼치는데, 그는 이 ‘상념’을 ‘사상의 가난한 한 뮤음’이라 표현한다. ‘창’을 대상화한 사유, 즉, ‘창 측(窓 側)’의 사상’이 곧 그의 수필 「창」인 셈이다. 그런데 김진섭은 인용문에서 대상을 관찰하면서 떠오른 상념을 따라 사유를 전개하고 이를 사상이나 세계관으로 승화시켜 가는 방식이 게오르그 짐멜이 화병의 손잡이에서 ‘매력적인 세계관’을 도출해 낸 과정을 모방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즉, 김진섭은 자신의 수필작법은 짐멜 식 사유의 모방인바, 성공할지 실패할지 결과를 알 수는 없지만, 미숙한 대로 나쁘지는 않은 시도라 말하고 있다. 김진섭은 「창」에서의 짐멜 식 사유법을 「산보급산보술」과 「경중영상」 등에서도 그대로 차용하고 있다. 이들 작품들은 청천의 수필 가운데 백미로 꼽히는 것들로, 가장 김진섭다운 작품, 즉, ‘사색적’ 혹은 ‘철학적’이란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작품들이다.

청천의 수필작법에 깊이 영향을 미친 게오르그 짐멜(1858-1918)은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활동한 독일의 사회학자이며 철학자이다. 철학자 치고는 독특하게도 그의 사유 주제 혹은 대상은 얼굴, 문, 다리, 장신구, 손잡이, 유행, 식사 등이다. 짐멜은 이렇듯 현대사회의 단편적인 대상에 대한 사회철학적 혹은 사회심리학적 성찰을 개진한 에세이 형식의 글로 자신의 철학을 삼은 것으로 유명하다. 유대인 출신에다 이런 식의 튀는 저술방식 때문에 그는 오랫동안 독일 철학계와 사회학계에서 이단아로 통했다. 철학자로서는 체계적인 사고와 논리 전개를 중시하는 정통적인 방식이 아니라 유추적이고 단편적인 에세이 형식의 글을 썼고, 사회학자로서도 사회학 이론이 중시하는 실천력 대신, 세계를 관조하고 삶을 미학화하는 성향을 주로 실천하였기 때문이다. 주제 역시, 일반적으로 철학자들이 사유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 돈, 유행, 모험, 폐허, 무게, 그림액자, 성, 종교 등이었고,<sup>10)</sup> 이러한 일상적이며 단편적인 현상이나 대상을 다룰 때 조차도 그는 당시 유럽 철학계에서 정통파로 간주되던 칸트가 아니라, 비주류로 여겨지던 니체의 철학에 의지하여 독특한 통찰과 직관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짐

10) 김진섭은 책, 문화, 문학, 창, 산보, 술, 유행, 의복, 광고, 직업, 연애, 결혼, 오락, 여행, 계절, 비(雨) 등을 수필의 주제로 삼고 있다.

멜은 사후에야 모더니티 이론가로 추앙받게 되었는데, 오늘날에는 현대사회 전반에 관한 탁월한 통찰을 제시한 거장의 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다.<sup>11)</sup>

짐멜은 김진섭이 활동하던 1920-40년대에 이미 조선에 소개되었다.<sup>12)</sup> 일례로 1906년에 짐멜이 펴낸 『칸트와 고테 Kant und Goethe』는 1928년에 다니가와 데쓰조(谷川徹三)가 번역하여 『カントとゲエテ』란 제목으로 岩波書店에서 출간되었다. 또한 1910년 독일에서 발간된 짐멜의 『現代文化의 葛藤』은 1920-30년대 일본과 조선의 지식인들 사이에 널리 회자되었다. 이 책에서 짐멜은 사회제도, 예술작품, 종교, 과학, 기술, 시민적 법률 등을 모두 문화형식으로 보고, 기존의 문화형식은 현대적 생의 요구에 상용하지 못함으로 일대 위기에 봉착하였는바, ‘현대’(모더니티)라는 새로운 시대에 어울리는 적절한 문화형식의 출현은 생의 새로운 발전을 위해 필요불가결한 일임을 강조하였다.<sup>13)</sup> 그런데 1920년대 이후 일제강점기 조선에서 특히 독일의 문학이나 철학은 다른 유럽국이나 러시아의 문학에 비해 덜 번역되고 수입된 편이었다. 그나마도 초기엔 고테와 하이네에 집중되었고, 릴케도 1940년대에 번역되었으며, 일제강점기 후반엔 해세가 비교적 많이 번역되었다.<sup>14)</sup> 일제강점기 조선인 가운데 베를린 대학교 등, 독일에 직접 유학을 가서 학위를 받고 돌아온 김세중, 안남규, 이극로, 최두선 등이 1920년대 초중반에 귀국하여 각계각층에서 활약하기 시작했고, 1920년대 후반에는 일본 동경제대에서 독문학을 전공한 김삼규, 서항석, 이효상, 조희순 등과 동경 법정대 출신의 김진섭, 이희영 등이 귀국하여 국내 활동을 시작하였다.<sup>15)</sup> 그런데 이

11) 김덕영, 2005 「제오르그 짐멜에 대하여」, 제오르그 짐멜(김덕영·윤미래 옮김), 『짐멜의 모더니티 읽기』, 새물결, 277-281면.

12) 당시 조선에서 짐멜을 소개한 글에는 김현준, 1931.1.1 「社會性과 道德性의 關係」 『별건 곤』 36; 김형준, 1935.1.1 「危機에 빠진 現代文化의 特徵」 『개벽』 3; 서항석, 1936.6.1 「海外文學講座, 獨逸文學의 特質(1)」 『삼천리』 8-6 등이 있다.

13) 김형준, 1935.1 「위기에 빠진 현대문화의 특징」 『개벽』 3, 67-69면.

14) 1920년대 초반 고테문학의 번역은 전영택, 주요한, 최승만 등이 주도했다. 일제강점기에 독일문학은 고테, 하이네, 릴케, 해세 순으로 많이 번역되었으며, 1932년에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및 문예월간지들은 ‘고테 서거100주년 기념특집’을 내기도 하였다. 정규화, 2001 「한독문화교류 120년」, 차봉희 편, 『한국의 독일문학 수용 100년』, 한신대학교 출판부, 10-11면.

15) 김진섭의 호세이대 졸업논문은 「알투르 슈니츨러 論」이다. 김윤식, 앞의 글, 291면. 귀국

들 가운데 잡지나 일간지에 독일문학작품을 번역하거나 독일문학을 소개하는 글을 발표한 것은 주로 일본유학파인 서항석, 김진섭, 조희순과 독문학을 중도에 포기한 시인 박용철이었다.<sup>16)</sup> 게오르그 짐멜도 이 무렵 조선에 소개되어 일부 지식인들 사이에 회자되기 시작했다.

김진섭은 「창」 외에도 「번역과 문화」(『조선일보』 1935.5)에서 번역관을 꾀력하면서 게오르그 짐멜을 언급하고 있다. 그는 괴테의 ‘세계문학’ 개념을 소개하면서 조선의 문학은 괴테 류의 세계문학에서 ‘칼로리’를 얻어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면서 외국문학의 번역과 연구의 필요성을 논구하였다. 괴테는 ‘세계문학’을 “인류 전반의 통일적 생활이라 하는 이상을 전제로 하고, 이보다 큰 통일과 조화의 원리에 의하여 결합되고 집합된 바 一束의 多彩한 文學”으로 정의하였는데,<sup>17)</sup> 김진섭은 “심미적, 도의적 통일을 갖는 점에서 전 인류는 오직 한 사람에 불과하다”(즉, 모든 사람은 같다)는 짐멜의 말을 인용하여 세계문학의 존립근거인 세계인의 공통적 감각의 존재를 논증하였다. 그는 조선에서 조차 세계문화에 대하여 내용적으로 유사가 있고, 이익의 공동이 있음을 강조하며 국가적 요소가 아닌, 세계적 공통성에 기초한 괴테식 ‘세계문학’에의 동참을 호소하였다.<sup>18)</sup> 김진섭 외에도 이하윤과 정인섭이 동시대에 이와 유사한 논리를 펼쳤는데, 그들 역시 짐멜의 이론을 논거로 차용하고 있다.<sup>19)</sup>

---

후 그는 경성제대 도서관에 취직하여 해방 후 제1대 서울대 도서관장(1946.10.22-1947.5.31)을 역임하는 등 오랫동안 사서로 일했다. 이동순, 2017 「한국현대사 속의 가족서사: 수필가 김진섭의 가족사를 중심으로」, 『문화와 융합』, 39-4, 330면. 서울대에 독어독문학과가 생긴 1946년 8월 27일 이후 그는 독문과 강의를 맡았고, 1949년에 정식교수로 임용되었다. 서울대학교 50년사 편찬위원회 편, 1996 『서울대학교 50년사 下』, 서울대학교 출판부, 16-20면. 고영석, 2001 「한국 독어독문학의 어제와 오늘」, 차봉희 편, 『한국의 독일 문학 수용 100년』, 한신대학교 출판부, 43-44면 재인용.

16) 고영석, 위의 논문, 38면.

17) 김진섭, 1955 「번역과 문화」, 『교양의 문학』, 전문사, 51면.

18) 김진섭, 1927.5.1 「世界文學에의 展望」, 『현대평론』 1-4, (문예면) 35-45면.

19) 정인섭은 세계문학을 광의와 협의로 나누고, 광의는 각국의 문학을 포괄하는 “세계의 문학”을 뜻하고, 협의는 괴테와 짐메르, 모울튼의 개념이 있다면서, 괴테는 “도의적, 심미적, 각 민족의 융합으로부터 발생하는 문학예술”을, 짐메르는 “인류 일반이 통일적 생활의 이상”을 말하는 문학을, 모울튼은 “예술의 통일”에 기인한 구주문학사 중의 대표작들

김진섭이 「창」에서 언급한 짐멜이 화병의 손잡이를 ‘관찰’하면서 도달한 ‘매력적인 세계관’이란 무엇일까? 이는 짐멜의 「손잡이-미학적 접근」이란 에세이에 설명되어 있다. 짐멜은 ‘(화)병’이란 대상은 그 자체로 예술작품이지만 ‘손잡이’를 통해 실제적인 인간의 삶, 즉, 인간의 활동 속에 편입되어 예술작품으로서의 자족성뿐 아니라 인간 활동과 관련된 기능적 지위란 이중성을 가지게 된다고 말한다. 짐멜에 따르면, 화병은 손잡이를 통해 외부와 맺는 관계들의 세계 속에 들어서게 된다. 병에서 손잡이는 병이란 예술작품이 유기적으로 폐쇄된 자신의 영역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더 광범위한 단위의 목적에 봉사하고 이를 통해 더 큰 단위의 세계에 편입되게 하는 부분이다. 이는 인간의 신체에서 팔에 해당하며 국가에서는 개별 가족들의 존재에 해당한다. 짐멜은 인간과 사물의 삶이 지니는 풍부함이란 바로 이 이중성에 근거하며, 이 이중성은 인간과 사물이 서로의 내부와 외부에 동시에 존재한다는 사실에 바탕한다고 보았다. 짐멜의 사유는 이 이중적 표상들이 인간의 영혼이 개인적 삶과 공동의 삶이라는 두 개의 세계에 고향을 두고 있는 숙명을 상징한다고 본 데에서 절정에 달한다. 인간의 영혼은 자족적인 자기세계에 속하면서도 다른 세계와의 연결망 속으로 자신을 편입시킬 때 비로소 완성되는데, 이때 영혼은 자기 세계를 구성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세계를 향해 내뻗는 팔과 같은바,<sup>20)</sup> 병에서의 손잡이가 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국가에 의해 둘러싸여 있는 가족도 마치 병의 손잡이와 같은 존재인데, 국가는 가족의 개별구성원들을 통해서 가족을 자신의 목적에 복무하도록 다루기 때문이다. 짐멜은 분리와 융합의 변증법적 관계 속에서 사물과 인간존재의 다양성이 발현된다고 본 것이다.

김진섭이 「창」에서 도달한 인식은 짐멜의 사유를 조금 단순화시킨 데 불과하다. 김진섭은 집에서의 창은 사람의 눈에 해당한다고 말한다. 사물로서 집이나 인간의 내·외부 간 구분에 기초한 ‘창’이나 ‘눈’은 내부에서 ‘밖을 보려는’ 인간

---

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정인섭은 외래문화를 소화해야 자국문화도 발전한다면서 번역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모든 위대한 문학은 “제작된 사회의 소유인 동시에 세계 사람들의 소유도 될 수 있다”면서 그렇지 않은 문학은 ‘지방주의적 문학’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정인섭, 1959 「세계문학과 한국문학」『한국문단논고』, 신흥출판사, 7-16면.

20) 게오르그 짐멜, 「손잡이-미학적 접근」 앞의 책, 104-106면.

욕망의 구현을 위해 존재하며, 이런 논리는 창과 눈뿐 아니라 나라와 나라 사이, 고을과 고을 사이의 도로나 그 위를 달리는 기차나 질구(疾驅)하는 전차와 자동차란 존재에도 적용된다. 이들 역시 “세계의 생활에 직접으로 통하고 있는 하나의 변화무쌍한 창(窓)으로서 의미”가 매우 큰데, 여행자가 탄 ‘유람자동차’는 ‘흥미에 찬 외래자의 큰 눈’에 다름 아니고, 도시의 ‘가로(街路)’는 외부세계로 통하는 길로서 도시인들에게 일종의 ‘창’이란 논리다. 김진섭의 글을 직접 보자.

우리로 하여금 항상 창 측의 좌석에 있게 하는 감정을 사람의 하나의 혀된 호기심이라고 단정하여 버릴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람의 보려 하는 참을 수 없는 충동은 이를 혀된 호기심으로만 지적하기에는 너무도 심각한 것 같다. 참으로 사람이란 자기 혼자만으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것이고, 그보다는 다른 사람의 생활에 의하여, 또는 다른 사람의 생활을 봄에 의하여 오직 살 수가 있는 엄숙한 사실에 우리가 한번 상도해 보면, 얼마나 많이 이 창 측의 좌석이 이 위급한 욕망에 영양을 제공하고 있는가를 용이하게 알 수가 있다. 이리하여 우리가 가령 달아나는 전차에 몸을 실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목적지를 지향하고 있는 구실 밑에 달아나는 가로에 있어 구제하기 어려운 이 욕망의 충족을 꾀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많은 가립의 소리, 은성한 상점의 쇼윈도-우리가 흔히 거리의 동화에 가슴의 환영을 여러 가지로 추리하는 기회를 여기서 가짐이 무엇이 나쁘랴-도시의 가로는 그만큼 충분-풍부하다. 달아나는 창은 무엇보다도 그것을 더 잘 보여준다.<sup>21)</sup>(밑줄은 인용자)

인용문에서 김진섭은 ‘창’이란 일상적 소재를 관찰하여 인간이 자신만의 자족적인 세계를 필요로 하면서도 동시에 타자 혹은 외부세계로의 지향이나 사회에의 동참 욕구를 지닌, 즉 사회화의 열망을 지닌 ‘이중적 존재’라는 인식에 이르고 있다. 이는 화병의 손잡이에 대한 짐멜의 사유 그대로이다. 김진섭은 인간의 이중성을 표상하는 대상으로 창, 문, 자동차, 도로, 가교 등을 꼽았다. 짐멜은 화병의 손잡이 외에도 「다리와 문」이란 에세이에서 다리(橋脚)와 도로(道路)는 사물들(산이나 지형들)이 서로 분리되어 있음을 전제로 인간의 ‘결합에의 의지’를 실현한 표상들로 간주하고 있다. ‘다리’는 양쪽의 기슭이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분리된 것’으로 인지하는 인간의 인식과,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인간의 의지가 모여 구축된 인공적 대상으로, 구축된 후 이는 다시 자연풍경에 귀

21) 김진섭, 1934.1 「창」『문학』『인생예찬』, 69-70면.

속된다. 인간은 세워진 다리를 풍광의 일부로, 즉 ‘놓인 다리’를 ‘그림 같은 요소’로 받아들인다. 주어진 자연은 다리를 통해 우연성을 벗어나 전적으로 인공적인, 그러면서도 자연적인, 즉 이중적인 동시에 정신적으로 통일성을 갖는 물상으로 고양된다는 것이다. 짐멜에 따르면 건물에서의 ‘문’도 마찬가지다.

인간은 결합시키는 존재이지만, 또한 언제나 분리를 수행해야 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그리고 인간은 분리시키지 않고서는 결합시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무관하게 존재하는 양쪽 물가의 기슭을 다리를 통해 결합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정신적으로 그것들을 분리된 것으로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인간은 어떠한 경계도 갖고 있지 않으면서 동시에 경계를 설정하는 존재이다. 인간의 주거공간이 문으로 닫혀 있다는 사실은 확실히 연속적인 통일성을 유지하는 자연적 존재로부터 한 조각을 잘라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로써 형태가 없던 경계에 형태가 부여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그러한 경계가 지닌 의미와 존엄성은 문의 역동성을 상징하는 것, 즉 언제라도 그러한 경계를 벗어나 자유를 향한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가능성 안에 존재한다.<sup>22)</sup>

인용문에 나타난 ‘문’에 대한 짐멜의 사유는 김진섭의 ‘창’에 대한 인식과 매우 유사하다. 짐멜에게서 ‘문’은 “격리된 채 그 자체로 존재하는, 제한된 상태를 벗어나서 모든 방향으로 나아가는 무제한의 삶이 흘러나오는 출처”이다. 짐멜은 ‘문’은 안에서 밖으로, 또 밖에서 안으로 쌍방향적 관계를 지향함에 비해, ‘창’은 전적으로 안쪽에서 바깥쪽을 지향하기 때문에 일면성을 갖는다고 말한다. 창은 안에서 바깥을 보기 위해 존재하므로, 창의 의미는 부분적이고 단선적이라는 것이다. 정리하면, 문은 안에서 밖으로 밖에서 안으로 실내와 외부 세계를 나누면서 동시에 연결하고, ‘다리’는 분리를 전제로 통합과 연결의 열망이 가시화된 인공물이지만, 그 자체로 자연의 일부로 습합되는 대상들이다. 이들은 모두 화병의 손잡이처럼, 개별적인 독립성과 사회화의 의지를 동시에 지닌, 인간이나 사물의 이중성을 표상한다. 다리, 문, 병의 손잡이에 대한 사유에서 짐멜은 인간은 고립을 전제로 하지만 또한 연결을 추구하는 복합적 존재라는 사실을 이끌어냈다. 마찬가지로, 김진섭은 창, 자동차, 도로, 가교를 통해 인간이 자신만의 고유한 영

---

22) 게오르그 짐멜, 「다리와 문」 앞의 책, 270면.

역을 필요로 하면서도 사회화의 욕망을 지닌 이중적 존재임을 읽어내고 있다.

김진섭이 자신의 수필 「창」을 얼마나 아꼈는지는 그가 한국문단의 병폐를 지적한 평론에서 '창'이란 표상을 재활용하고 있음에서 확인된다. 「창」 보다 9개월 후에 발표한 「조선과 문학애호심」이란 평론에서 그는 좋은 문학작품을 생산하는 토양은 독자들의 문학애호심임을 강조하고 있다. 진정한 문학애호정신은 지도에 의해 배양될 수 있지만,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참된 달릿랜티즘'이야말로 문단의 결정적 자극제가 된다면서, 그는 문학에 대한 독자들의 '방관적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즉, 그에게 있어 '방관적'이란 단어는 직접적으로 이해가 개입되지 않은, 순수한 의미의 관심을 의미한다. 그런데 그는 '방관적'이란 관형사를 수필의 본질을 설명하면서 '방관적 태도'로 '자기 말하는 문학양식'이란 규정에 사용함으로써 절박함이 결여된, 문학이나 글쓰기를 취미나 여가로 간주하는 사람으로 오해를 사기도 했다. 하지만 그가 사용한 '방관적'이란 관형사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 「조선과 문학애호심」에서 그는 조선 문단의 빈약함을 시인하면서 그 원인으로 신문학의 역사가 짧고 빈곤한 민중들이 문화에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으며, 심지어 문인들조차 문학을 호구지책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현실을 문제삼았다. 다시 말해 누구도 온전한 문학애호심을 가질 수 없는 빈한한 현실은 문학조차 이해가 결부된 일로 간주하게 된다는 사고에 이어진다. 그는 대중의 '방관적' 문학애호정신과 작가의 창의력이 만날 때 뛰어난 작품이 탄생될 수 있다면서, 대중의 순수한 문학애호정신이야말로 '천재'를 육성할 빛이 쏟아져 들어오는 '창'이라 표현하였는데,<sup>23)</sup> 여기서도 '방관적 태도'란 먹고사는 문제와 무관한, 즉, 현실적 이해타산과 무관한, 한발 떨어진 관찰자의 객관적 시각을 의미하고 있다. 짐멜을 차용한 듯한 김진섭의 인식은 「산보급산보술」에서도 나타난다. 그는 산보, 즉, '길을 거니는 행위'는 "풍부한 몽상과 표밀한 발견"을 손상 없이 "우리의 가난한 집에 가져올 수 있"게 하는 도회인의 휴식이자 직장인의 즐거움이라 말한다.<sup>24)</sup> 즉, 그가 '산보'를 즐거워하는 것은 산보가 외부를 관찰하는 즐거움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풍부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행의 철학」에서는 산보에

23) 김진섭, 1934.11 「조선과 문학 애호심」 『조선일보』 『교양의 문학』, 27-28면.

24) 김진섭, 1934.6 「산보와 산보술」, 선안나 편, 2011 『김진섭 선집』, 현대문학, 24-27면.

서 한발 더 나아가 ‘여행’의 의미를 탐진하는데, 그에 따르면, 개념적 교육인 귀로만 듣는 ‘죽은 교육’에 비해, 여행은 구체적이고 실험적인 ‘산 교육’이다. 여행의 참된 의미는 외부를 바꿈으로써 자신의 내부가 변화되는 것에 있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인식으로 그는 이 글의 결론을 대신하고 있다. 이는 또한 그가 많은 영향을 받은 몽테뉴의 여행관이기도 하였다.<sup>25)</sup>

짐멜은 현대적 대도시가 출현하면서 자연발생적인 전통적 소도시에서와는 구별되는 모더니티(현대성)에 의해 인간의 삶이 변화함에 주목하여 모더니티에 대한 사회철학적 탐색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김진섭은 짐멜의 탐색과 논의가 갖고 있는 시대적 배경이나 역사적 맥락에는 별다른 관심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의 관심은 보편적 개인의 내면적 풍요로움이나 충일함의 획득에 있었다. 따라서 김진섭 수필의 ‘관념성’은 이렇듯 세기말적 전환기를 맞은 독일을 배경으로 한 짐멜의 사회역사적인 철학과 사유들에서 역사성과 시대성을 탈각시킨 채 인간보편에 대한 사유로 치환하여 번안한 사유라는 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사실은 김진섭이 제국의 괴식민지였던 조선의 지식인으로서, 제국의 수도에서 또 다른 제국인 독일문화와 문학을 공부한 수필가였기에 가능했던 역사적 아이러니로 볼 수 있다.

김진섭 수필의 이런 경향은 「경중영상(鏡中映像)」에서도 확인된다. 「경중영상」의 주제는 사람의 ‘얼굴’인데, 이 역시 짐멜의 ‘얼굴’에 관한 에세이의 내용과 매우 닮아있다. 「경중영상」에서 김진섭은 인간의 외관을 영사해주는 충실한 매개체인 ‘거울’에 대해 사유한다. 그는 거울 속 영상(얼굴)은 다른 사람들이 인식하는 그 사람의 형상(얼굴)에 완전히 부합하지는 않음에 주목한다. 사람의 거울 속 얼굴, 즉, 경중영상은 그 사람이 심원에 품고 있는 자신의 이상적 형상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거울을 보는 사람은 거울 속 자기얼굴을 보고 놀라기도 한다. 하지만 차츰 인간은 거기서 자신이 심원하는 이상적 형상을 읽어내어 결국 경중형상은, 자신의 원형 용모와는 다른, 제2의 안용(顏容)으로서 차츰 심원의 형상을 닮아간다. 그러자 인간은 이 조성된 안용을 차츰 자신의 참된 얼굴로 오신(誤信)하게 된다. 김진섭은 텔포스의 아폴론 신전에 새겨져 있는 ‘너 자

25) 몽테뉴(손우성 옮김), 2007 『수상록』, 동서문화사, 261면.

신을 알라!’는 말을 가져와 인간이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일의 어려움을 ‘거울’에 관한 상념을 통해 통찰해 내고 있다. 사람들이 거울을 들고 ‘진묘한 착종감’에 번민하곤 하는 것의 가치는 거울에 비친 영상이 실제 자신의 모습일 거라 믿는 마음이 진리를 구하는 데서 유래했는지, 아니면 혀영을 탐하는 마음에서 유래하였는지에 의해 결정될 문제라면서, 그는 이에 대해 독자에게 성찰을 촉구하고 있다.<sup>26)</sup>

사람의 얼굴을 주제로 한 청천의 수필에는 「여성미에 대하여」도 있다. 이 글에서 그는 인간의 외형적 미는 금방 사라지지만 얼굴에 나타난 정신이나 내부생활 등은 그렇지 않다면서, “내적 조화, 선량, 품위, 굳센 의지, 풍부한 사상, 감정, 자비의 마음, 쾌활한 정신, 이 모든 것이 그의 눈에서 빛나고, 그의 얼굴에 떠돌고, 그의 행동을 지배할 때” 수학적으로 균제를 잊은 선과 불완전한 혈색이나 외모적 결함 따위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말한다. 이는 남녀 모두에게 해당하는 이야기로, 사람의 얼굴은 “선천적으로 부모에게서 태어나온 신체를 출발점으로 삼고, 그것을 우리의 정신적 노력에 맡김으로 해서 조각적으로 다듬어”지는 것이다.<sup>27)</sup> 즉, 그는 인간의 외모 가운데 결정적 부분인 얼굴은 정신에 의해 만들어지고 형성됨을 강조하고 있다. 「나의 자화상」에서도 그는 사람의 얼굴은 남만 볼 수 있고 스스로는 정당하게 평가할 수 없는 바, “참된 인간의 얼굴은 거울의 외부”에만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sup>28)</sup>

한편, 짐멜은 「감각의 사회학」에서 인간은 자신의 얼굴을 볼 수 없고, 또 얼굴은 어떤 행위도 하지 않으면서 남만이 볼 수 있는 그 사람의 독특한 이력(그 사람이 지금까지 축적해온 것들, 개인의 침전된 과거)을 보여주고 이야기 해준다고 말한다.<sup>29)</sup> 또 「얼굴의 미학적 의미」라는 에세이에서는 “인간의 영혼이 가장 명백하게 표현되는 곳이 얼굴”이며, 얼굴은 정신뿐 아니라 인격을 표상하는 바, 거기엔 인간이 느끼는 전형적인 정서들-증오, 불안감, 온화한 미소, 끊임없는 사

26) 김진섭, 1937.11 「경중영상」『김진섭 선집』, 82-84면.

27) 김진섭, 1938.1 「여성미에 대하여」『조선일보』『인생예찬』, 74-78면.

28) 김진섭, 1937.2 「나의 자화상」『조선일보』 위의 책, 209-210면.

29) 게오르그 짐멜, 「감각의 사회학」 앞의 책, 160-161면.

리 추구, 기타 무수한 정서들-이 지속적으로 남긴 흔적이 나타나 있다고 말한다. 짐멜은 “움직임 속에서 정서가 지속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침전되는 것은 오로지 얼굴에서이다. 이러한 특유의 유연성을 통해서 유일하게 얼굴만이 인간의 내적 인격을 직관할 수 있는 기하학적 장소”라는 통찰을 제시하고 있다.<sup>30)</sup>

이렇듯 김진섭의 초창기 수필들은 화병의 손잡이, 창, 다리, 얼굴을 주제로 한 게오르그 짐멜의 에세이들에서 문제의식이나 사유를 풀어가는 방식 등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음이 확인된다. 하지만 김진섭의 사색이 짐멜의 경지를 넘어선 경우도 없지 않다. 예컨대, 김진섭의 「군중과 유행」은 짐멜의 「유행의 심리학·사회학적 연구」라는 에세이처럼, 사회심리학적으로 ‘유행’이란 문제를 탐구하고 있는데, 양자는 내용적으로 거의 일치한다. 짐멜은 유행이란 개별적이고 특수한 것에 끌리는 인간의 차별화 내지 개성추구의 욕망과 집단과 융합하려는 사회적 균등화 경향의 타협 속에 나타나는 삶의 특별한 형식이라 해석한다. 특히 상류 계층을 모방하려는 중하위 계층의 모방충동에 의해 유행이 추동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많은 사람이 유행을 쫓을 때 자신만은 유행을 쫓지 않는 것도 개성의 표현일 수 있고, 유행을 쫓는 집단으로부터 소외되는 것이 싫어 유행을 쫓는 경우도 있음을 지적하였다. 유행을 쫓는 무리 가운데 창의적 모험을 감행하는 데에 따른 비용을 피하고 창조적 소수에 의해 이미 시작된 유행에 무임승차하려는 일군의 사람도 있다. 그들조차 유행이 대중의 것이 되는 순간, 즉, 진짜 유행이 되는 순간 그 유행을 버린다면서.<sup>31)</sup> 유행은 유행이 되는 순간 생명을 다하고 새로운 유행에 자리를 내어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김진섭도 짐멜과 마찬가지로 유행이란 사회적 현상에는 모방과 개성 추구라는 양면성이 공존하며 유행은 주로 상류에서 하류 계층으로 전파되는 특징이 있다고 말한다. 그런데 김진섭은 유행이 자본가의 마케팅 전략에 의해 만들어지고 조작될 수 있음을 통찰해 내고 있어 짐멜과 차별화된다. 김진섭은 “유행은 자본의 투하와 운전의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제적 한 책략이다”라는 독일의 경제학자 ‘가올케’의 말을 인용하여 기업가들이 상품판매를 위해 유행을 만들어내기도 함을 지적한다.<sup>32)</sup> 이런 차

30) 「얼굴의 미학적 의미」 위의 책, 111면.

31) 위의 책, 55-66면.

이는 짐멜의 인식은 19세기 말에 안출되었고, 김진섭은 20세기 초에 사회적 현상으로서 ‘유행’을 관찰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김진섭의 초기 수필들에는 독일의 사회학자인 짐멜의 영향이 매우 강하게 드러나 있다. 그러나 대체로 짐멜은 19세기 말 독일에서 국가와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고답적인 국가과학과 사회과학에 저항하는 일종의 ‘지적 반역’ 내지는 ‘지적 혁명’으로서의 성격이 농후한 에세이들을 통해 개인들 간의 사회화를 중심으로 새로운 사회학적 변화들을 짚어낸<sup>33)</sup> 반면, 제국 독일의 문학을 제국 일본의 수도 동경에서 공부한 식민지 조선의 지식인 김진섭은 짐멜의 사유에서 역사적·시대적 맥락은 괄호 친 채, 보편적 인간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짐멜과 유사한 주제, 유사한 논의들을 전개하였다. 이런 까닭에 그가 『생활인의 철학』에서 부르짖은 ‘정치’에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생활’ 속의 사색들은 기실 그가 『인생예찬』에서 비판했던 고독경에 침거한 철학자의 사유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고 말았다.<sup>34)</sup>

### 3. 생활(철학)론에 나타난 괴테와 니체의 영향

김진섭은 「현자(賢者) 괴테」에서 괴테를 세계 최대의 현자로 꼽고, 여러 글들에서 괴테의 생활철학과 생활향락론, 그리고 니체의 철학을 자신의 생활철학론의 근간으로 삼고 있다. 그는 괴테를 다윈과 같은 ‘一學說唱導者’나 생시몽과 같은 고답적인 ‘一社會改革家’가 아니라, 특정분야에 한정되지 않는, 최고의 지혜에 도달한 현자(賢者)라 평가한다. 그는 괴테가 말한 ‘지혜’란 “모든 상태를 자유로 움과 현명함을 가지고 개관(概觀)하는 바, 저 정신”이라 말한다. 이때 정신은 자제(自制)와 방담(放膽)을 동시에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그는 괴테에게서 쇼펜하

32) 김진섭, 1958 「군중과 유행」 『청천수필평론집』, 신아사, 239-247면.

33) 김덕영, 2007 『제오르그 짐멜의 모더니티 풍경 11가지』, 도서출판 길, 41면.

34) 김윤식은 이런 김진섭의 면모에 대해 김진섭은 철학에의 지향은 있었으나 그것이 지식이나 학문체계를 의미하는 ‘철학’ 혹은 ‘철학자’의 그것과 무관한, ‘인생의 예지’를 직관으로 통찰하는 철인(哲人)의 영역에 가까운 성격이라 보았다. 김윤식, 앞의 글, 290-291면.

우어와 같은 의지의 부정이 아니라 ‘살기를 생각하라!’는 사상을 읽어낸다. 괴테는 “너무 깊기만한 사색, 너무 넓기만한 지식”을 추구하는 학문과 현실정치에의 참여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김진섭도 일제강점기 내내 민족적 현실로부터 한발 물러난 지점에서 괴테의 ‘생활향락(生活享樂)’의 철학을 익히고 ‘중용지도(中庸之道)’를 발견하여 이를 자신의 철학의 근간으로 삼았다.

그(괴테)의 최고의 고백은 “살기를 생각하라!”는思想에 대하여 그리하여 우리의 눈에 저같이도 허술하고 하치도 않게 보이는 生活享樂의 ‘중요성’에 대하여 인류의 주의를 喚起시키는데 있어야만 할 것이다. 왜 세상은 이제 슬픔의 골자기, 악마의 나라이어야 하며 세계의 가치는 彼岸으로부터의 恩惠에 의하여 부여되고 세계란 天上에 대한 동경과 준비의 장소이어야 하느냐? “그것은 얼마나 甘味한 快樂이냐”고 괴에테는 부르짖어 마지않는 것이다. “자기의 하고 싶은 바와 같이 이 세상의 됨새를 알고 그리하여 이 인간생활을 유쾌하게 享樂하되 超凡한 浪費를 하지 않고 倫理的, 感性的 刺戟의 純眞한 範圍 내에서 사는 성실하고 이해 깊고 현명한 사람과 交際한다는 것은 얼마나 甘味한 鮐樂이냐!”고 그는 이와 같이 힘차게 생활을 肯定하면서 오히려 거치른 狂氣를 능히 制御할 줄 알았던 것이다. (중략) 괴에테의 智慧가 歷史的도 아니요 豫言의도 아니요 또는 幻想의도 아니요 模型의도 아니요 실로 그것은 체험 속에 두 발을 굳게 붙이고 모든 독단을 물리치는 바 生活 自體의 補足者라는 것이다. 모든 妄想과는 반대로 그의 ‘못토’는 높이 외치는 것이다. “생활의 목적은 생활 그것이니라.”고---이리하여 괴에테는 그 性格에 있어서만이 아니고 그 環境에 있어서 우리와는 크게 달라 하더라도 여기 모든 時代를 통하여 가장 偉大한 사람의 하나가 이 같은 ‘一般人間性’의 길을 걸었다는 未曾有의 사실은 이 人生을 사는 모든 종류의 인간에게 사람이 만일 純粹히 자기의 人間性 그대로 生活할 수 있다면 반드시 이에 죽지 않을 수 없는바 基礎的 敎訓을 줄 것이 自明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 그의 誕生 二百周年의 記念日을 맞이하며 멀리 있는 괴에테의 墓石 위에 이러한 두어 글자를 기쁘히 읽지 않으려는가---“이는 참으로 할(? ‘한’의 오식으로 보임: 인용자) 사람의 인간이었다.”<sup>35)</sup>(밑줄은 인용자)

위의 인용문에서 김진섭은 괴테(1749~1832)를 통해 생활을 향락하는 것의 중요성을 설파하고 있다. 삶은 슬픔의 과정이고 천상의 세계를 향한 준비의 장소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인간은 살기만을 생각하며 그런 삶조차 감미한 것으로 간주하고 향락하여야 한다는 것이 인용문의 주된 논지이다. 이런 괴테의 생각은

35) 김진섭, 1932.3.22 「현자 괴에테」 『동아일보』 『교양의 문학』, 209-211면.

몽테뉴의 것이기도 하였다. 몽테뉴는 『수상록』에서 비종교적인 입장에서 죽음을 사유하는 현자적 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몽테뉴는 철학은 죽음에 대한 준비일 뿐 다른 것이 아니라는 키케로의 말을 들어 인간에게 불가피한 죽음을 걱정하다 삶의 맛을 잃지 말고, 살아 있는 동안 생명에 고통을 주는 모든 요소들을 가능한 제거하고 삶을 향락하는 것이 중요함을 밝은 톤으로 거듭 설파하였다.<sup>36)</sup> 또 그는 사람에게 불행을 끌어오는 원인으로서 걱정을 배격하고 중용과 절도의 도를 권장하였다. 즉, 자유가 방자함을 초래하지 않도록 중용을 권고하면서 인간은 이성의 힘으로 행복을 찾을 수 있고 또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sup>37)</sup>

김진섭은 자주 몽테뉴와 괴테를 인용하면서 그들에게서 ‘생활의 예지’를 차용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자기의 하고 싶은바”에 따라 “생활을 유쾌하게 향유”하는 것인데, 이는 『교양의 문학』에 수록된 마지막 글 「입센 단상」의 주제기도 하다. 그는 “내 의지에 적합하고 그 속에 내가 만족할 수 있으면 그만이다!”는 막스 슈티르너의 말을 인용하면서 어린 시절 입센이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친구들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았으나 자기 방에 돌아온 후에는 다재하고 온순하며 선량한 소년이 되곤 하였다면서 당시 입센은 “혼자서 꿈꾸려 하였다”고 말한다. 이어 그는 입센의 예처럼 자신의 의지에 따라 생활을 나름의 방식으로 유쾌하게 향락하는 일이 중요함을 거듭 강조한다.<sup>38)</sup>

김진섭은 『교양의 문학』의 「자서」에서 이 책은 ‘골똘한 研究의 結果’가 아닌, ‘散策의 所感’ 혹은 ‘一文學愛好者の 표탕(飄蕩)한 기록물’이라 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는 살아생전 2권의 수필집을 간행했는데, 제목이 『인생예찬』과 『생활인의 철학』이었다. 그의 이러한 인생철학은 「인생은 아름다운가?」라는 수필에 집약적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그는 “인생은 그다지도 아름다운가?”라는 화두를 던진 후 반어적 결론을 제시한다. 인생은 “모든 수형을 지불하기는 하되 기한을 지키지 않는 채무자”에 해당한다면서 “우리가 인생 그것으로부터

36) 몽테뉴, 앞의 책, 1253-1254면.

37) 위의 책, 1260면.

38) 김진섭, 1936.5 「입센 단상: 나는 항상 폭풍우를 사랑했다」 『조선일보』 『교양의 문학』, 212-214면.

조금인들 받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열렬히 사랑할 때 인생이 아름다운 것은 정한 이치”라는 것이다. 즉, 그는 인생은 결코 아름답지 않다는 체관(蹄觀)의 철학을 가지고 있지만, 아름답지 못한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야 하기에 ‘사는 힘’ 외에도 여러 ‘생활기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런 기교로 “쾌활, 달관, 양식, 양지, 교양, 현명, 정애, 건전, 향락”을 제시한다.<sup>39)</sup> 이런 대목들에서는 괴테뿐 아니라, 신이 죽은 이후의 비극적 세계에서 인간의 ‘의지’를 강조한 니체(1844~1900)의 영향도 읽힌다. 왜냐하면 니체는, 마치 괴테가 파우스트를 통해 자신을 극복하고 디오니소스적 긍정으로 운명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건강한 웃음을 찾 아가는 인간상을 제시하였듯이, 짜라투스트라를 통해 괴테의 파우스트상에 버금 가는 새로운 독일인상, 긍정적 의지의 인간상을 창안하였기 때문이다.<sup>40)</sup> 실제로 니체는 괴테를 읽고 성장한 철학자인데, 김진섭은 쇼펜하우어(1788~1860)와 더 불어 니체를 자주 거론하고 있다. 「문학의 인생적 가치」에서는 “문예작가는 인생을 반영하는 거울이 되고 인생을 설명하는 교사”가 되어야 하며 “자기의 민족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하여 주는 예언자”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위대한 문예가는 “일민족의 운명과 일시대의 정신까지를 우리에게 알도록 밝혀주”는 존재라면서 ‘시대정신’을 창조한 위대한 문인으로 괴테와 니체를 함께 제시하고 있다. 특히 니체는 19세기 구라파의 문화적 위기를 가장 위대하고 비극적인 방식으로 구 상화한 철학자로서 내면에 ‘위대한 시인’이 살고 있어 문예작가의 반열에 올려놓을 수 있다고 말한다.<sup>41)</sup> 즉, 김진섭은 괴테와 니체를 인생론적 관점에서 시각과 역할이 유사했던 문예사상가로 취급하고 있다.

김진섭이 동경에서 공부할 당시 일본의 많은 문인들은 괴테를 흡모했다. 모리 오가이(森鷗外:1862~1922), 아쿠타가와 류노스케(芥川龍之介:1892~1927), 다자이 오사무(太宰治:1909~1948) 등이 그러했다. 당시 괴테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현자 중의 현자”, “위대한 교양인”으로 추앙되었다. 일본의 문인들은 특히 괴테의 교양을 사랑하였다. 괴테가 말하는 교양은 “가치판단이 가능한 품위”로, 이는

39) 김진섭, 1938.1 「인생은 아름다운가」, 『삼천리문학』, 『교양의 문학』, 38면.

40) 이영수, 2009 「니체의 ‘위버멘쉬’(초인)에 대한 원형 탐색」, 『철학논총』 58, 329면.

41) 김진섭, 「문학의 인생적 가치」, 『교양의 문학』, 14-17면.

책을 읽고 지식을 쌓는다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양인에게 물려받을 수 밖에 없는 성질의 것이다.<sup>42)</sup> 괴테의 교양관은 김진섭의 첫 수필 「무형의 교훈」에서 김진섭이 자신의 교양의 근원으로 한학에 조예가 깊었던 부친을 든 사실을 떠올리게 한다. 김진섭은 「교양에 대하여」에서 괴테의 교양관을 직접 설명하는데, 괴테가 말한 교양이란 ‘쿨툴라 아니마’, 즉, ‘내면성의 형성’이며, 이는 지식의 갈구와 달리 ‘전체적인 인간수양’을 의미한다.<sup>43)</sup> 김진섭은 『조광』 1939년 6월호에 괴테의 시 「최초의 상실」과 「천변만화의 연인」을 번역하여 실었고,<sup>44)</sup> 「괴테 와 담배」,<sup>45)</sup> 「괴에테의 범람」,<sup>46)</sup> 「현자 괴에테」란<sup>47)</sup> 수필을 발표하는 등, 끊임없이 괴테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표하였다. 『인생예찬』이란 수필집의 제목도 찬할 만한 인생이어서 찬하는 것이 아니라, 찬하는 태도와 마음가짐, 즉, 개인의 ‘의지’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수용하고 향락하는 것이 인생의 참된 지혜라는 괴테와 니체로부터 터득한 ‘예지’를 암시한 제명으로 볼 수 있다.<sup>48)</sup> 1932년에 발표한 「괴테의 범람」에서 김진섭은 독일 정신문화에서 괴테의 영향력을 지대하고 독문학을 전공한 자신도 괴테에 대한 정신적 교의(交誼)가 얇지 않지만, 자신은 ‘특수성에 침윤하는 재능’이 있어 ‘보편성을 대표하는 최대의 인물인 괴에테’를 유감스럽지만 토구(討究)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말한다.<sup>49)</sup> 그러나 이후에 번역론이나 생활론에서 괴테에게서 받은 영향을 그는 감추지 않고 있고, 짐멜의 이론에서 특수성을 탈각시킨 뒤 보편적 논의로 번안 수용한 사실에서도 그가 보편론자로서 괴테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음이 간파된다. 「생활의 향락」이란 수필

42) 데키나 오사무 편저(이혁재 옮김), 2011 『괴테 청춘에 답하다』, 예인, 7면.

43) 김진섭, 1946.7 「교양에 대하여」 『국학』 『인생예찬』, 140-142면.

44) 김진섭, 『청천수필평론집』, 315-319면.

45) 김진섭, 박종화 서, 1978 『김진섭 미발표 수필선』, 중앙신서, 99-102면.

46) 김진섭, 1966 『생활인의 철학』, 문예출판사, 265면.

47) 김진섭, 『교양의 문학』, 208-211면.

48) 『김진섭 선집』을 펴낸 선안나도 이런 맥락에서 김진섭은 인생이 아름답지 않음을 일찍이 간파했기에 오히려 인간답고 아름답게 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역설하였고 생의 진정한 즐거움을 논했고 세계를 기리고 찬양하였다고 보았다. 선안나, 「책머리에」 『김진섭 선집』, 8면.

49) 김진섭, 1932.2 「괴에테의 沦濫」 『조광』 『생활인의 철학』, 265면.

은 『인생예찬』의 사상이 집약되어 있는 글인데, 여기서도 김진섭이 괴테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음이 잘 드러나 있다.

사람이 타고 난 活力を 萎縮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세상의 풍파에 摩擦을 당해야 됨은 물론이고, 또 우리는 생활의 목적이 생활하는 것 그 자체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운동하고 성장하고 戰鬪하는 것이 곧 생활의 目的이 됨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우리가 가진 精力의 신선한 更生을 꾀할 수 있을 때, 그곳에야말로 支障 없는 생활의 享樂은 추구되는 것이지, 安易와 逸樂 속에 생활의 享樂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왜냐하면 光明이 가득 찬 생활이란 항상 克服하기를 意欲하고, 그 克服은 戰鬪 없이는 實現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가장 아름다운 생활의 향락은 현실 생활의 폐활한 操縱과 精神力과 肉體力의 조화 있는 균형 속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으니, 生活術이란 결국 무엇이냐 하면, 달기도 하고 쓰기도 한 모든 體驗 속에서 우리가 한 개의 심각한 智慧를 導出하는 동시에, 그 奥妙한 甘汁을 摄取할 줄 아는 독특한 技巧를 말하는 것이 아닐까.<sup>50)</sup> (강조는 필자)

위의 인용문에서 김진섭은 “생활의 목적은 생활하는 것 그 자체”라 말한다. 그런데 이는 원래 괴테가 한 유명한 말이다. 김진섭은 「현자 괴에테」에서 괴테가 “생활의 목적은 생활 그것이니라”라고 말했다고 직접 서술하기도 하였다.<sup>51)</sup> 괴테는 말년의 대작 『파우스트』에서 인간은 원래 과오를 되풀이하는 존재지만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해 노력하는 모습에서 긍정성을 찾을 수 있다면서 자신은 83년의 생애 동안 “산다는 것, 그것은 좋은 일”이라는 신조로 살았으며 또 이를 거듭 천명해 왔다고 말한다.<sup>52)</sup> 그런데 이는 또한 몽테뉴의 사상이기도 하였다. 몽테뉴는 “인생은 그 자체의 목표이며 의도라야 한다”라는 인식에 기초하여 『수상록』을 구성하였다.<sup>53)</sup> 김진섭의 「생활의 향락」의 메시지도 인생에는 거대한 목적이 따로 있지 않고, 삶은 생활 그 자체, 즉, 사는 과정 자체가 목적이라 말한

50) 김진섭, 1940.10 「생활의 향락」, 『박문』『인생예찬』, 19-20면.

51) 김진섭, 「현자 괴에테」, 『교양의 문학』, 210면.

52) 윤종혁 편저, 1994 『고통도 현자에게는 두렵지 않다: 괴테의 생애와 문학』, 이목구비사, 260면.

53) 몽테뉴, 앞의 책, 1171면.

다. 「하일염염(夏日炎炎)」이란 글에서 그는 “편하고 그리고 즐겁게 많이 웃고 오래 살려는 것이 결국은 인간 최후의 생활철학”이라면서 “모든 것은 운명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앞에 부딪친 운명을 가장 아름답다 생각함이 긴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다.<sup>54)</sup> 그렇기 때문에 괴테나 몽테뉴나 김진섭에게 생활을 향락하는 기술의 터득은 무엇보다 중요하였다. 괴테의 최고의 생활향락술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유쾌하게 삶을 향유하면서 성실하고도 이해심이 깊고 현명한 사람과 교제하는 것이었다.<sup>55)</sup> 김진섭은 생활의 향락을 위해서는 정신력과 체력의 조화 속에서 ‘현실생활의 쾌활한 조종’이 필요하며, ‘기형적으로 발달한 두뇌’보다 ‘인간 전체를 생활 중심적으로 완성시키는’ 일이 중요함을 설파하였다. 즉, 그는 “개념의 세계를 치구(馳驅)하는 사성인(思性人)”의 현실과 유리된 ‘침사(沈思)상태’ 보다 “육체와 영혼이 융합”된 생활 자체에서 획득한 ‘혜지(慧智)’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sup>56)</sup> 그는 달기도 쓰기도 한 체험 속에서 ‘한 개의 심각한 지혜’를 도출할 줄 아는 능력과 ‘그 오묘한 감증을 섭취할 줄 아는 기교’가 생활술(生活術)이라 말했다. 그는 “철학자에게서 생활에 대한 예지의 부족”에 크게 놀란다면서 “생활인으로서 나에게는 필부필부(匹夫匹婦)의 생활체험에서 우러난 소박·진실한 안식(眼識)이 고명한 철학자의 난해한 칠봉인(七封印)의 서(書)보다 훨씬 맛이 있”음을 강조하였는데,<sup>57)</sup> 이는 몽테뉴도 마찬가지였다. 몽테뉴는 『수상록』에서 ‘보잘것없는 농부’나 ‘민중’이 철학자보다 더 의연하고 자연스런 삶의 방식을 이해하고 실천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있다.<sup>58)</sup> 김진섭의 ‘생활의 예지’는 인생은 비극적이고 무의미하지만 그것을 찬(讚)하는 의지를 가지고 생활을 향락하는 기술을 터득함으로써 과정 자체로서의 인생을 즐기자는 것으로, 이는 ‘생활의 감미한 쾌락’을 추구한 괴테와 몽테뉴의 삶의 모토이기도 하였다.

54) 김진섭, 1933.8 「하일염염」 『중명』 3, 『인생예찬』, 133-141면.

55) 김진섭, 「생활인의 철학」 『생활인의 철학』, 19-22면.

56) 김진섭, 1939.9 「사상과 행동: 참된 인간의 형성」 『김진섭 선집』, 156-158면.

57) 김진섭, 「생활인의 철학」 『생활인의 철학』, 19-22면.

58) 몽테뉴, 앞의 책, 1156면.

#### 4. 수필론에 나타난 몽테뉴와 베이컨의 영향

김진섭의 수필관은 「수필의 문학적 영역」에 집약되어 있는데, 이 글의 진의가 제대로 조명되지 못한 예가 있다.<sup>59)</sup> 이 글에서 그가 제시한 수필의 2가지 본질은 “숨김없이 자기를 말한다.”는 것과 “인생사상(人生事象)에 대한 방관적(傍觀的) 태도”의 유지이다. 수필은 숨김없이 자기를 말하되 특히 “그 사람의 중심”을 말하는 것이라는 대목은<sup>60)</sup> 곧바로 몽테뉴의 『수상록』을 연상시킨다. 왜냐하면 몽테뉴는 『수상록』의 서문격인 「이 책을 읽는 이에게」에서 “내가 묘사하는 것은 나 자신”이고 “생긴 그대로의 자연스럽고 평범하고 꾸밈없는 나를 보여주기 위해” 이 글을 내어놓는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sup>61)</sup> 수필이 다른 문학 양식에 비해 작가 자신을 직접 표출하는 글이란 사실은 대부분의 문인들이 공감하는 바이다. 『현대에세이론』을 쓴 G.하스는 시나 소설 같은 전통문학양식과 달리 에세이는 사회와 깊이 관련된 문학양식으로서 특별하지 않은 주제에 대한 특별한 통찰을 담는 산문으로, 인간 심혼의 두 측면인 상(像)과 의미(意味)를 통합한 글이며, 필자의 내적 세계를 가장 잘 드러낸 양식으로 보았다.<sup>62)</sup> 조선의 문인 가운데 『문장강화』(1940 문장사)를 쓴 이태준은 특히 수필에 관심이 많았다. 그는 「수필문의 요령」에서 수필이란 양식은 “그 사람의 것”이 직접 재료가 되어 나오기 때문”에 한마디로 ‘자기의 심적 나체(裸體)’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수필을 쓰려면 먼저 ‘자기의 풍부’가 있어야 하고, ‘자기의 미’가 있어야 함을 이태준은 강조했다. 그는 그런 수필의 예시로 김진섭의 「창」을 첫 번째로 꼽았고, 두 번째로 이상의 「권태」를 들었다.<sup>63)</sup>

김진섭이 수필의 본질로 꼽은 또 하나는 ‘방관적 태도’인데, 이는 베이컨을 연

59) 김윤식, 앞의 글, 293면과 방민호, 앞의 논문, 174-178면.

60) 김진섭, 1939.3.14-3.23 「수필의 문학적 영역」 『동아일보』 『교양의 문학』, 130-131면; 『김진섭 선집』, 122-126면.

61) 몽테뉴, 「이 책을 읽는 이에게」 앞의 책, 7면.

62) Gerhard Hass(오현일 옮김), 1978 「에세이와 사회」 『현대에세이론』, 삼중당, 137-138면과 75면.

63) 이태준, 1988 「수필문의 요령」 『이태준전집 16: 문장강화』, 서음출판사, 166-169면.

상시킨다. 왜냐하면 베이컨의 에세이론은 대상에 대한 관찰과 분석과 비판을 종합한 서술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는 특히 주제에 관한 작가의 주관성을 배제한, 사색적이되 객관화된 사상화를 강조하였기 때문이다. 베이컨은 에세이를 통해 학문과 독서 등의 지력에 기초한 예지로써 인생을 깨뚫으면서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참(진리)을 깨우치고자 하였다.<sup>64)</sup> 김진섭은 『생활인의 철학』의 표제작인 「생활인의 철학」에서 철학자의 철학이 아닌, “인간적 통찰력과 사물에 대한 판단력을 지닌 생활인” 특유의 인생관과 세계관을 ‘생활철학’이라 명명하고, 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가 말하는 생활철학은 ‘생활의 예지’에 다름 아닌데,<sup>65)</sup> 「자서」에서 생활의 예지에 이르는 길은 “일생활자(一生活者)로서 생활의 제 단면 (諸斷面)을 대상으로 삼고 혹은 사색도 하며 혹은 관찰도 하며 혹은 비판도 하며 혹은 예찬도 하기”를 즐기는 데 있다고 적고 있다. 즉, 김진섭은 생활인이 예지를 발견하는 방법을 베이컨과 마찬가지로 대상에 대한 ‘사색과 관찰과 비판’에서 찾고 있다.<sup>66)</sup> 베이컨과 김진섭은 공히 작가의 감정적 개입을 배제하고 대상에 대한 관찰과 사색을 통해 진리에 이르는 길을 중시하였고, 김진섭은 이를 ‘방관적 태도’라 표현한 것이다. 즉, 김진섭이 수필론의 골자로 꼽은 두 가지, ‘자신을 말하는 것’과 ‘방관적 태도’란 전자는 몽테뉴에게서, 후자는 베이컨에게서 차용한 에세이관의 종합으로 볼 수 있다.

몽테뉴와 베이컨을 종합한 김진섭의 수필론은 그가 전공한 독일문학과 관련이 있다. 왜냐하면 『독일 에세이론』에서 오한진은 독일에서 에세이란 사유적 연상과 직관을 통해 생각의 유희를 아름다운 언어로 예술적으로 형상화한 산문으로,<sup>67)</sup> 몽테뉴(1533-1592)와 베이컨(1561-1626)을 전범으로 한다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몽테뉴는 개인적 친밀감을 지닌 주관적인 표출을 통해 굴절적 사유, 유희적 산책에 해당하는 에세이를 주로 썼고, 베이컨은 냉정한 언어감각과 자명한 논리를 바탕으로 경험적 세계를 객관적으로 논증하는 에세이들을 주로

64) 장백일, 1994 『현대수필문학론』, 집문당, 141면.

65) 김진섭, 「생활인의 철학」, 『생활인의 철학』, 19-22면.

66) 김진섭, 「자서」, 『생활인의 철학』, 7면.

67) 오한진, 1998 『독일 에세이론』, 한울림, 13-14면.

쳤다.<sup>68)</sup> 몽테뉴의 서술은 작가 자신에 해당하는 ‘나’란 1인칭 화자를 내세워 진솔한 자기고백을 이어가고 있고, 베이컨은 현실에 대한 관찰에 기초해서 객관적 거리두기를 한 일반론적 차원의 서술을 이어간다. 김진섭의 수필 가운데 「명명 철학」과 같이 깔끔하고 전형적인 수상록에 가까운 수필은 몽테뉴의 『수상록』에 수록된 글과 주제나 내용이 매우 유사하다.<sup>69)</sup> 귀족 출신의 권력욕 강한 야심가로서 세속적인 주제를 귀납적인 방식으로 다룬 베이컨에 비해<sup>70)</sup> 김진섭의 에세이는 주제, 서술 방식, 세계관 등에서 상대적으로 몽테뉴의 것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오한진은 독일에서 순수한 에세이 작가는 “활동하는 생활인으로서 글을 쓰려” 하는 자로서, “정신세계를 광범위하게 체험한 사람이며, 그가 지니고 있는 예술성이란 직접적인 세계관에서 부족한 것을 직관력을 통해 대치하”는 사람이라 설명하였다.<sup>71)</sup>

순수한 에세이 작가란 정신의 귀족을 말한다. 귀족이란 개념은 유감스럽게도 번역 할 수도 없고 독일어로 표현할 수도 없다. 여기서의 귀족은 영주시대의 귀족계층처럼 재판관 역할을 한다. 비록 심판과정을 거치지는 않지만 판결총액을 내놓고 결정을 한다. 그의 결정은 그의 정신적 바탕과 토양 위에서 내려지며 생명이 짧은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보다 근본적인 법칙에 따라 결정된다. 즉 법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성좌적 신앙고백이나 전통적 예의습관, 박자, 상식, 세계적 이해들과 일치하고 정신적 제국에 있어서의 올바른 질서 목표와 일치하는 법주 내에서 결정된 것이다.

정확히 관찰해서 이런 귀족적 태도는 창조적 직관에 대한 기질에 추가되는 요소인 것이다. 직관이나 천재적 통찰 시적 자질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있을수록 더

68) 몽테뉴는 슬픔, 나태, 예언, 불굴, 옷 입는 습관, 고독, 절도, 식인종, 우정, 잠, 이름 등을 주제로 에세이를 썼고, ‘~에 대하여’란 제목을 많이 사용한 반면, 베이컨은 진리, 죽음, 복수, 역경, 선, 질투, 분노, 교활, 우정, 미신, 여행 등의 주제를 다루었고 ‘~에 대하여’란 제목도 많이 사용하였으나, 서술이 일반론적 차원에서 객관적인 거리를 두고 진행되는 특징이 있다. 위의 책, 31면.

69) 몽테뉴, 「이름에 대하여」 앞의 책, 297-298면.

70) 베이컨의 이런 성격에 대해서는 권오석, 「해제」, 프랜시스 베이컨(권오석 옮김), 1990 『베이컨 수상록』, 흥신문화사, 310면과 이양하, 「베이컨의 수필집」, 송명희 편, 2009 『이양하 수필 선집』, 현대문학, 304면에서도 “베이컨은 한평생 영달하는 데 급급하고 대법관으로 있으며 뇌물을 먹고 살각하였다.”라고 서술되어 있다.

71) 오한진, 앞의 책, 198-199면.

귀족적인 태도는 글의 소재를 완전하게 승화시키고 활력 있게 표현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소재를 보다 근본적으로 인식하여 극복하면 극복할수록 소재는 보다 영적으로 날개를 단 듯이 통찰되고 강화된다. 직관이 보다 자유자재의 어휘들로 표현되며 표현될수록 직관은 보다 말의 절제나 침묵을 통해서 효과를 나타낼 수 있게 되며 표현될 수 없는 세계들에 대해서도 보다 가까이 맴돌게 하는 것이다. (중략) 모든 에세이가 지니고 있는 문장의 찬란함과 철저한 교양은 순수한 에세이 작가가 지침금으로 간직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척도가 되는 것이다. 직관적 개념이 낭만적으로 나타나거나 소진되는 것처럼 보이는 작가에게는, 그가 에세이 작가로서 세례 받는 존재임을 더욱 독려해주고 창조적 과정에 무의식적 참여를 갖도록 일깨워 주어야 하며 초현실적 꿈의 날개를 작동시킬 수 있는 감각조직을 이식시켜 주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시대정신을 측정하는 지진계의 나침을 그에게 달아주어야 한다. 그리고 미래사건을 예측할 수 있는 레이더 안테나를 부착시켜 주어야 한다. 따라서 순수한 모든 에세이 작가는 작품상에 있어서 마술적 시인이 되는 것이며 예언자가 되는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작가의 힘은 에세이에 이성적 통찰의 힘을 부여해 주게 되는 것이며 성스러운 정신적 영역에 있어서 성스러움이 지배하는 성격을 나타내 주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신앙적 믿음과 정중함, 심심한 깊이를 부여해 주게 되는 것이다.<sup>72)</sup>

(강조는 인용자)

이러한 독일에세이의 특징을 이해한다면 김진섭의 수필관도 어느 정도 수긍될 수 있을 것이다. 생활인으로서 글을 쓰되, 직접 체험이 부족한 부분은 직관으로 메꾸고, 교양을 지닌 정신의 귀족으로서 정확한 관찰을 통해 통찰력과 직관, 시적 자질이 드러난 글을 쓰는 사람을 순수한 에세이 작가로 간주하는 것이 독일이기 때문이다.<sup>73)</sup> 그런데 김진섭은 수필론에서 베이컨적 요소를 ‘방관적 태도’라 표현함으로써 “현실에의 몰각이나 실천력과 관련 없는” 수필론이란 오해를 불러 일으킬 벌미를 제공했다. 이를 의식했는지, 그는 ‘방관적 태도’에 대해 “최고의 지식과 관찰력을 구비한 사람이 방관자적 태도로 인생 사업을 관찰하여 거기서

72) Vgl. Bruno Berger, 1964 *Der Essay, Form und Geschichte* Berlin/München, S.188-192, 위의 책, 199-201면에서 재인용.

73) ‘본질적 주제와 본원적 사상’을 골자로 한 독일식 에세이는 어떤 문제의 결론을 제시하거나 그것으로 독자를 교육하려 하지 않고 단지 숙고를 축발하여 독자의 정신세계가 그 문제에 열리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한다. 즉, 유연하게 전개되는 다채로운 소재들에 대한 생각의 변화에 동참하도록 독자를 자극하는 유희적이며 예술적인 글이 독일의 에세이라는 것이다. 위의 책, 13-14면.

느낀 감흥을 솔직히 고백할 때 필자의 지성과 감성이 풍부하면 풍부할수록 또 그것을 고백하는 심경이 고결하면 고결할수록 그 수필의 문학적 생명이 오랠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여 놓았다. 이런 대목에서 그가 말한 ‘방관적’이란 지식과 관찰력을 구비한 인물이 어떤 일의 당사자거나 혹은 그 일에 직접 나서서 관여 하기 보다는, 곁에서 관찰하는 자로서, 즉, 객관적 거리를 갖고서, 대상에 대한 자신의 감흥과 사색을 숨김없이 진솔하게 표현한다는 의미임을 알 수 있다. 김진섭의 ‘방관적’이란 말은 괴테의 ‘관조적’이란 용어와 상통한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과 『파우스트』를 썼고 바이마르의 최고의 현자(賢者)로 존경받았던 괴테는 모든 학문이나 예술의 영위는 ‘어떻게 살 것인가’는 문제에 이어져 있다고 보았다. 괴테는 이탈리아 여행에서 돌아온 뒤, 뒤떨어져 있는 독일의 문제들을 깨달았지만, 현실정치에 직접 참여하기보다는 “사색하는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행복은 탐구할 수 있는 것을 완전히 탐구하고, 탐구할 수 없는 것을 조용히 관조하는 일”임을 거듭 강조하였다.<sup>74)</sup> 1940년 필화사건을 겪기 전까지 발표한 김진섭의 수필들에는 괴테와 유사하게 현실 정치에서 한발 떨어진 자리에서 세계를 관조하고, 대상에 대해 깊이 관찰하면서 사색하는 태도가 일관되게 드러나 있다. 현실정치로부터 떨어져서 보편인간의 문제를 고민한 현자 괴테의 문제의식은 이렇듯 김진섭 수필에 기초가 되었다. 삶이 아름답지 않지만 예찬하는 태도로 생활하며 인생을 향락해야 한다는 인식 또한 괴테의 것이자 김진섭의 것이었다. 나라도 없는 민족의 지식인으로서 김진섭은 오로지 ‘생활’에만 관심을 집중하였던 것이다. 당시 그의 관심사는 “인생을 될수록 즐겁고 길게” 사는 것, “인생을 절도 있게 향락하는 것”이었고,<sup>75)</sup> 그런 그의 사상적 전거는 당시 동경의 문인들도 흠토하던 괴테였다. 일본문단의 지성인들은 제국주의화한 조국을 사제한 보편인간론에 매료되었다면, 식민지 지식인 김진섭은 그 역방향에서 보편인간론에 매료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진섭 수필론의 ‘방관적 태도’에서 ‘방관적’이란 한정사의 온전한 의미를 추론하기 위해 「散步及散步術」(1934.6.18)을 볼

74) 윤종혁 편저, 앞의 책, 259-260면.

75) 김진섭, 1936.4 「춘양독어」 『김진섭 선집』, 54면.

필요가 있다. 이 글에는 산보자가 거닐면서 주위를 관찰하는 것의 의미를 정확히 설명한 대목이 있기 때문이다.

흔히 생활은 우리의 머리 위에 하나의 무거운 철추를 휘두르고 있다. 조금인들 꿈꿀 여유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온종일 일을 하고 저녁이라고 먹고 나면 어쩐지 그대로 자기가 억울하다. 이대로 자서 내일의 노동에 직접 연락되기보다는 이러한 생활로부터 한번은 해방되어 그 사이 하나의 거리를 지켜보았으면 한다. 만족에서든 불만족에서든 우리는 스틱을 잡고 집 문을 나서 보는 것이다. 도회의 相貌는 다채롭고 포도의 굴곡은 다기하다. 발 돌아가는 대로 어디를 거닐든 그것은 이 때만은 그 사람의 자유다. 산보자는 一淡泊한 관찰자로서 그러나 호기애 찬 깊은 개의 탄력을 가지고 모든 움직임을 살피면서 이제까지의 '심장수축'(Sytole)의 과정을 버리고 활달한 심장신장(Distole)의 섭리 밑에 몸을 맡기는 것이다.

이때 생활을 떠나고 이해를 초월한 산보자에게 자기와는 관계없는 만물과 인생의 생활을 安閑히 봄에서 유래하는 하나의 폐활한 순간이 도래할 것은 두 말할 것도 없다. 어떠한 지리적 비약이 없이 모든 여행의 조건을 구비하고 있는 이 산보는 참으로 도회인이 가지는 일단의 경쾌한 시가 아니면 아니 된다. (중략) 산보의 정도는 혼자서 하는 데 있다. 그것은 그리하여 한결같이 진행하는 몽상의 좋은 주자가 되는 까닭이다. 왜 우리는 산보에 있어서까지 몽상의 방해자를 동반할 필요가 있는가? 우리는 우리가 이때까지 종사하고 있는 모든 사무를 배후에 남기고 발 가는 대로 이 골목 저 골목을 두 다리가 피곤을 깨달을 때까지 헤매야 하는 것이다. 만일에 누가 우리의 이름을 묻는다면 우리는 그제야 비로소 우리 자신의 이름을 생각해 내지 않으면 아니 되도록 혹은 진지한 문제이든 우스운 문제에 대하여 물두하는 것이다.

이러한 일종의 도취상태는 동반자가 있으면 도저히 얻을 수 없는 방황함으로 의하여 우리는 일속의 풍부한 몽상과 표일한 발견을 조금도 손상함이 없이 그대로 우리의 가난한 집에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만일에 산보를 갔다가 소 '콜롬부스' 혹은 조그만 '바스코 다 가마'로서 돌아오지 않는다면 즉 아무 인상, 아무 발견이 없이 몸에 피로만 만재하고 온다면 차라리 집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명한 일일 것이다.<sup>76)</sup>(강조는 인용자)

위의 인용문에서 김진섭은 '생활'은 심장이 수축되는 활동이라면 그 대척점에 있는 '산보'은 심장을 이완시키는 일로서, 자유로운 해방의 시간이자 발길 닫는 대로 거님을 즐기는 시간이다. 또한 수필가로서 그에게 산보는 걷기운동이 아니라 관찰을 통해 몽상에 이르기 위한 행위이다. 그는 '담박'한 관찰자의 시선뿐

76) 김진섭, 「散步及散步術」『김진섭 미발표 수필선』, 189-191면.

아니라 호기에 찬 ‘젊은 개의 탄력’을 가지고 자신의 이름조차 잊어버릴 정도로 무언가를 깊이 ‘몽상’하거나 ‘사색’하는 몰입의 시간, 도취의 시간이 ‘산보’라 말한다. 산보의 소득은 ‘풍부한 몽상과 표밀한 발견’인데, 그는 이를 콜럼버스가 신 대륙을 발견한 것에 비견하고 있다.

「소박한 영혼」이란 글에도 관찰의 중요성을 설명한 부분이 있다. 그는 모든 생물은 본질적으로 자기중심적인데, ‘생활’의 부면에 있는 사람에게 이는 피할 수 없는 동향이라 말한다. 그는 니체를 인용하여 이런 경향은 직선적, 일면적, 배타적이라 말한다. 인간이 생활에만 매여 있으면 이런 자기중심성에서 헤어날 수가 없고, 따라서 진정으로 타자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고 이해하는 데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아(자기중심성)를 탈각하고 인생 자체를 세세히 관찰해야 한다는 것이다. “네 비할 곳 없이 부박(浮薄)한 보조를 잠시 멈추고 그리하여 이 한없이 복잡한 인생을 더욱 세밀히 관찰하라!”고 그는 말한다. 인생에 대한 깊은 이해는 “이 생의 사회학적 현실을 관망하”는 데에서 가능하며, 이를 통해 자신뿐 아니라 타자의 생활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 되면 인간은 더 이상 눈으로써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마음과 정신으로 사람이나 선악을 구분하는 단계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sup>77)</sup> 즉, 김진섭이 말하는 ‘방관적 태도’란 자신의 ‘생활’과 직접 연루된 대상이나 일이 아닌, 어떤 주제나 현상, 대상에 대해 지식을 기초로 관찰하고 이를 통해 깊은 사색에 몰두하여 인생의 예지를 발견하는 데 필수적 요소이다.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는 ‘생활의 문제로부터 벗어난’이란 뜻으로 그는 ‘방관적’이란 관형사를 쓰고 있는 것이다. 결국 수필론에서 그가 말한 ‘수필’의 장르적 본질은 마치 산보자가 산책을 하면서 심장이 수축되는 ‘생활’의 긴장으로부터 잠시 놓여 나, 심장이 이완되는 여유를 가지고 주위를 관찰하고 이를 통해 깊은 사색에 이르며 거기서 삶의 지혜를 발견하는 과정을 담는 산문이 된다. 18세기 영국의 시인이자 평론가였던 사무엘 존슨(Samuel Johnson)이 수필을 “자유로운 마음의 산책”이라 했던 것과 김진섭의 수필론은 이런 맥락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sup>78)</sup> 김

77) 김진섭, 1930.8.17 「소박한 영혼」 위의 책, 221-223면.

78) 장백일, 앞의 책, 142면.

진섭의 수필이 사색적인 수상록에 가깝다는 평가들은 수필에 대한 그의 이런 인식의 결과일 수 있다.

## 5. 닫는 말

김진섭의 첫 수필집 『인생예찬』의 표지화는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고, 첫 글은 그가 번역한 독일의 프리-드릿히 랏쇠의 시 「冊의 世上」이다.<sup>79)</sup> 이 책에 수록된 「독서술」이란 글에는 가장 행복한 시간은 책을 읽는 시간이란 파울 에른스트의 말이 인용되어 있다.<sup>80)</sup> 김진섭은 책과 관련된 수필인 「장서가(藏書家)」<sup>81)</sup> 「기담(奇談),」<sup>82)</sup> 「서두(書蠹)와 인생의 교유(交遊),」<sup>83)</sup> 「전적산필(典籍散筆),」<sup>84)</sup> 「종이頌」<sup>85)</sup> 「진서(珍書)이야기」<sup>86)</sup> 등을 쓰기도 했다. 여러 장으로 이루어진 「전적산필」에는 오랫동안 도서관 사서나 관장을 지낸 그의 책에 관한 생각들이 집대성되어 있다. 여기서 그는 “도서란 세계의 기록”이며, 호머, 밀튼, 괴테, 소크라테스, 플라톤, 공자, 기독, 석가도 만날 수 있게 하는 책은 “우리를 가르치는 스승이며 우리를 위로하는 벗”이라 예찬한다.<sup>86)</sup> 또 『인생예찬』의 대미는 그가 직접 번역한 독일 히테 폐테레의 시 「겨울밤에 나는 봇을 들고」로 장식되어 있다. 이는 겨울밤 눈 내리는 소리를 들으며 봇을 들고 글을 쓰는 사람을 묘사한 작품이다.<sup>87)</sup> 한마디로 『인생예찬』이란 수필집은 그 시작과 끝이 책을 읽는 시간

79) 프리드리히 랏세(김진섭 옮김), 「책의 세상」 『인생예찬』, 7-9면.

80) 김진섭, 1937.9 「독서술」 『생활인의 철학』, 256면.

81) 김진섭, 박종화 서, 『김진섭 미발표 수필선』, 88-98면.

82) 위의 책, 179-183면.

83) 김진섭, 1934.10 「전적산필」 『조선중앙일보』 『교양의 문학』, 93-127면.

84) 김진섭, 「종이頌」 『생활인의 철학』, 155-162면.

85) 김진섭, 「진서(珍書)이야기」 『청천수필평론집』, 148-159면.

86) 위의 글, 94-96면. 몽테뉴도 “책은 언제나 대기상태인 벗”으로 사람에게 위로를 준다고 하였으나, 삶에서 중요한 것들은 책에서 배울 수 없다고 보았다. 몽테뉴, 앞의 책, 910면.

87) 히테 폐테레(김진섭 옮김), 「겨울밤에 나는 봇을 들고」 『인생예찬』, 211-212면.

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읽은 책들을 기초로 겨울밤 봇을 들어 글을 쓰고 있는 이미지로 채워져 있다. 이는 많은 것을 상징한다. 「창」이란 초기 그의 대표작에 나타난 표상을 빌면, 수필가 김진섭이 세계와 만나는 ‘창’은 분명 ‘책’이다. 초기 그의 수필세계의 키워드는 ‘창’과 ‘가교’인데, 책은 세계인의 ‘지적 보고’이자 ‘문화의 접적물’로 그가 세계나 선현과 만나는 ‘창’이자 ‘가교’이다. 이는 짐멜이 그의 철학적 에세이들에서 말한 집의 ‘문’이나 화병의 ‘손잡이’, 산의 기슭과 기슭을 연결하는 ‘교각’이나 도시와 도시를 잇는 ‘도로’들에 해당한다. 김진섭은 책을 통해 세상을 보았고, 거기에 기초해 글을 썼다. 그런 그에게 ‘번역’은 외국어로 된 세계를 모국어화하는 것으로, 이 또한 문화와 지식의 국제적 ‘가교’이자, 세계 혹은 밖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창’의 역할을 한다. 마치 오늘날 세계인들이 ‘원도 우즈’란 인터넷 ‘창’을 통해 인간과 세계, 개인과 지식, 개인과 사회가 접속하듯 이 말이다.

주지하다시피, 김진섭은 유학 후 귀국하여 1928년부터 필화사건이 있던 1940년 초까지 경성제대 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했다. 경성방송국에서 일한 몇 년을 제외하면 유학기간이나 서울대 도서관장, 서울대 교수로 일한 기간까지 그는 인생의 대부분을 책 속에서 보냈다. 따라서 그의 사유가 책에서 발원함은 자연스럽다 할 수 있다. 게다가 외국문학을 전공한 그는 조선에 소개되지 않은 책도 외국어로 직접 읽을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의 수필들에 나타난 짐멜이나 괴테, 니체, 몽테뉴, 베이컨 등의 영향은 이로써 가능하였다. 박봉이지만, 사서라는 안정된 직장이 있었기에 그는 ‘생활’에 얹매이지 않는 ‘여유’를 가지고 대상을 ‘관찰’할 수 있었고, 사서나 도서관장, 교수로 일하며 ‘책’과 항상 가까이 있었기에 거기서 얻은 지식과 관찰의 결과를 버무려 사색할 수 있었으며, 성장기에 받은 한학의 세례에서 절제된 언어감각을 획득할 수 있었다. 그 결과의 최대치가 「매화찬」과 「백설부」의 세계라 하겠다. 하지만 가장 김진섭다운 작품, 그의 수필적 특장이 가장 잘 드러난 작품은 「창」과 「경중영상」, 「산보급산보술」 등, 짐멜의 영향이 강하게 나타나 있는 초기작들과 괴테와 몽테뉴, 베이컨의 영향이 강하게 나타나 있는 생활향락론과 수필론을 담은 수필들이라 할 수 있다.

관찰과 사색에 기초한 수상록적인 이 글들로 인해 김진섭 수필의 고유성이 확보되었기 때문이다. 「우송」, 「권태예찬」, 「비밀의 힘」, 「망각의 변」 등도 그러하다. 김진섭이 수필에서 거듭 주장하는 생활철학, 즉, 삶을 아름답게 여기고 생활을 향락하는 기술을 터득하여 삶을 향락하라는 전언은 괴테와 니체, 몽테뉴의 철학에 매우 가깝다. 또한 관찰과 사색과 비판이 어우러져 있으면서도 자신의 중심을 숨김없이 드러내는 문학양식이 수필이라는 그의 수필론은 베이컨과 몽테뉴의 수필관을 종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는 또한 「산보급산보술」의 말미에 ““우리의 화원”이 책상에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슬픈 일이냐”고 서술하고 있다. 그가 책상에서 발견한 화원은 짐멜, 괴테, 니체, 몽테뉴 등인데, 그는 왜 그것들이 책상 위의 화원임을 슬퍼하는 것일까? 일제강점기 식민지 조선의 지식인이었던 그는 독일이 아닌 일본 제국의 수도 동경에서 독일문학을 전공했다. 유년기에 한학에 조예가 깊었던 부친 김면수(金冕秀, 1855-1930)에게서 한학을 배웠고, 청소년기에 조선에서 근대식 교육을 받았으며, 성장 후 식민제국의 수도에서 또 다른 제국인 독일의 문학을 배웠다. 이로써 그의 문학적 감식안은 괴테류의 세계문학적 수준에 맞추어졌고, 귀국 후 목도한 조선의 사정은 그와는 너무도 거리가 멀었다. 직장인 도서관에서 그는 자신에게 친숙하고 평안을 주는 진경(眞境)인 괴테의 문학과 몽테뉴의 에세이, 짐멜의 사회철학적 에세이 속으로 깊이 침잠했고 거기서 세계로 향하는 나름의 ‘창’을 발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획득한 세계문학적 감각과 철학적 사유능력으로 그는 조선의 풍경을 관찰하기도 하였다. 그 결과가 「매화찬」이고 「백설부」의 세계이다. 여기엔 1930년대 중후반 조선편화계에 전방위적으로 몰아친 ‘조선적 향토색 찾기 운동’의 영향도 배어난다. 하지만 그건 잠깐이었다. 1940년 필화사건을 계기로 그런 모색도 중단되고 만다. 필화사건을 중심으로 그의 문필활동을 전후반기로 구분한다면, 전반기 수필 대부분은 보편적 인간에 대한 관찰과 사색으로 채워져 있고 후반기 작품들은 ‘국가재건’이란 정치적 화두에 몰입되어 있다.

1940년까지 그가 ‘조선의 현실’이 아닌, ‘보편적 인간’으로 비월해 간 것은 결

국 그가 이 시기에 책 속의 세계와 책 밖의 현실 간의 커다란 낙차를 직시하고 감당할 힘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sup>88)</sup> 선진국의 학문이나 문물을 익히고 체험한 지식인이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 자국의 현실을 직시하기까지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김진섭은 일제강점기 조선인으로서 독일문학을 전공한 1세대 지식인이었다. 김진섭의 머리를 가득 채운 선진유럽의 문화와 예술, 철학의 세계와 반봉건 식민 상태인 조선 현실과의 낙차는 쉽게 극복할 수 있는 정도를 지나 있었다. 귀국 후 얼마간 그가 식민지 조선에 대한 적극적 고민과 일제에 대해 저항적 태도가 담긴 글이 아닌, 보편적 인간에 대한 ‘관찰과 사색과 비판’적 인식으로 채워진 글을 쓴 사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아름답지 않은 인생을 아름답다 여기며, 생활하는 것 자체가 목적인 생활을 향락하는 것 외엔 달리 사는 기술이 없음을 ‘생활철학’이나 ‘생활의 예지’란 이름으로 제시한 그의 수필세계의 밑바탕에 식민지 지식인의 짙은 페시미즘(pessimism)이 감지되는 것은 이로써 이해될 수 있다. 그가 니체와 쇼펜하우어를 자주 언급하고, 수필에서 ‘술 이야기’를 유독 많이 하고 있음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 시기 그의 수필세계는 짐멜의 모더니티에 대한 사회철학적 성찰이나 괴테의 세계문학적 인식들에서 역사적 맥락만 제거하고 그것을 식민지 조선에 옮겨놓은 형국으로, 어쩌면 당시 그의 수필들은 조선의 풍토에 맞게 ‘의역’된 짐멜이고 괴테라 할 수 있다. 이런 사실들에서 그가 진짜로 찾고자 한 것은 ‘책상’ 위의 ‘화원’인 짐멜과 괴테의 세계로부터 벗어나 조선의 현실에 가 닿는 “진정한 ‘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추론도 가능해진다. 김진섭이 그 ‘문’을 발견하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는 충분한 시간을 더 갖지 못한 채 전쟁을 맞았고 납북되었다.

나라 없는 백성에게 모든 나라가 낯선 외국일 수 있지만, 어떤 나라도, 말의 엄정한 의미에서, ‘외국’일 수도 없다. 나라 없던 일제강점기, 제국의 수도에서 또 다른 제국의 문학을 전공한 그는 기실 누구보다도 ‘국가’란 관념에 의식적이

88) 이에 반해 해방 이후, 납북까지 후반기 그의 수필들은 ‘나라만들기’란 현실적 과제에 집중되어 있다.

었을 것이다. 그의 수필들이 ‘국가’를 삭제한 보편적 인간론으로 채워져 있고, 그 것의 외현이 비극적 세계관을 감춘 ‘생활향락론’인 사실은 역설적이게도 근대적 개인에게서 ‘국가’가 갖는 의미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보게 한다.

주제어 : 김진섭, 수필, 수필론, 외국문학, 영향관계, 짐멜, 괴테, 몽테뉴

투고일(2018. 7. 26), 심사시작일(2018. 8. 9), 심사완료일(2018. 9. 17)

〈Abstract〉

A Study on the Essays Written by Kim Jin Seop I  
- Focused on How to Be Affected by Foreign Literature -

Kim Mee Young\*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shown us the essays written by Kim Jin Seop in Japanese colonial era how to be influenced by foreign literature especially German literature & philosophy, his major. The conclusions of this article are three. First, his early works, like as *Chang(窓, The window)* is affected strongly G. Simmel's essays. But his essays are erased social philosophical connection in Simmel's, as a German philosopher. Second, Kim Jin Seop's essays are revealed Goethe's influence in thoughts. Kim & Goethe, they had pursued joy & enjoyment in the ordinary lives not in the political lives. So, the essays by Kim emphasized happiness of the human life that is universal. Third, Kim's theory of the essay as a genre is the synthesis of Montaigne's & Bacon's which are two of the great models of German essay. Kim said the essences of essay are two things. Contents of essays are self expressions. The writer's view point is the bystander's. 1st idea is from Montaigne's essay, 2nd is from Bacon's essay. Finally the early essays by Kim Jin Seop are affected strongly German literature & philosophy.

**Key Words :** Kim Jin Seop, essay, theory of essay, foreign literature, influence, Simmel, Goethe, Montaigne

---

\* Assistant Professor, Core College, Hong-ik University.